

29대 총여학생회 '모음' 퇴진 및 '총여학생회 재개편'에 대한 학생총투표 서명

안녕하세요. '총여학생회 재개편'에 대한 학생총투표 서명운동을 추진 중인 백호인입니다.

현 총여학생회는 성평등, 성소수자 관련 정책을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그 회원은 여학생으로 한정하며 투표권 또한 남학생에게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에, 총여학생회 재개편에 대한 학생총투표를 요구합니다.

- 5월 24일에 있었던 총여학생회가 주최한 강연은 **독단 행위**입니다.

제38조 (100인안전상정제) 본회의 회원 100명 이상이 요구하는 사항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며 중앙운영위원회는 이에 대해 책임 있게 논의, 의결해야 한다.

5월 24일 진행되었던 '강연 반대' 서명에 1300여명의 학우가 서명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하여 학우들의 의견이 중앙위원회에 정식으로 요구되지 못했지만 연세대학교 총학생회칙에 지정된 '100명'이 넘는 '1300명'의 의견을 무시한 채 총여학생회는 "그럼에도 여성주의는 취소될 수 없다."라는 워딩으로 강제 진행하였습니다. 1300여명의 학우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소통에 힘쓰지 않은 것은 지나친 독단 행위입니다.

- 권력분립은 권력의 집중과 남용에 의한 구성원들의 자유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치적 기본원리입니다.

5월 24일에 있었던 총여학생회의 독단적인 권력 남용을 다시금 방지하기 위해 총여학생회의 재개편은 필수적입니다. 총여학생회는 소수자의 원활한 자치활동과 자립성을 위해 산하에 어떠한 운영기구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총여학생회의 구조적 체계를 바꿔야 올바른 목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당신만의 목소리를 울림으로, 1000여명의 수많은 우리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대자보 中

- '총여학생회의 재개편'을 요구합니다.

<현 재개편 가안>

1. '총여학생회'의 명칭을 '총여학생회'에서 '학생인권위원회(가제)'로 변경을 요구합니다.
2. '학생인권위원회'의 구성원을 '여학생'에서 '연세대학교에 재적 중인 학부생'으로 확장을 요구합니다.
3. '학생인권위원회'의 투표권을 '여학생'에서 '연세대학교에 재적 중인 학부생'으로 확장을 요구합니다.